

제국주의, 팽창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역사화해

정 현 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전지구화(globalization)의 물결이 몰아치고 컴퓨터와 이동통신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니, 과거를 분석해 보아야 하는 역사학의 과제는 미래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역사가들은 보다 성찰적인 눈으로 스스로가 서술해온 과거를 돌아볼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역사학은 그간의 역사서술, 특히 국가 중심의 역사서술이 근대역사학의 산물이지만, 역사적 진실을 재구성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제 역사학, 나아가 역사교육은 냉정하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성찰적 자세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자면, 우리는 그 사이 얼마나 민족주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고, ‘강대국에 의한 피해자’를 자임하면서도 우리 내부에 스스로 제국주의의 눈(imperial eyes)을 지니고 있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얼마나 강한 성장중심주의가 착근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한/중/일 사이의 역사갈등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역사학이 대중 속에서 왜곡된 정치화와 갈등의 첨예화를 약화시키지도 못하였고, 화해와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걸음을 제대로 내디디지도 못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발표를 통해 내 안의 제국주의, 팽창주의, 민족주의를 읽어내고, 나아가 역사화해를 모색하는 소박한 제안을 내놓고자 한다.

내 안의 제국주의 (Imperialism in myself), 내 안의 팽창주의

우리 안의 제국주의는 먼저 동아시아 3국의 역사 속에 내재화한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일 것이다. 최근 역사가들 사이에서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는 유럽과 북미의 역사발전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비서구세계를 주변화해온 그간의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유럽은 거의 모든 역사의 독보적인 이론적인 주체로 간주하고, 인도 페루 케냐 등의 제3세계 역사는 결손이거나 이행에 실패한 것으로 가르쳐왔고, 이렇게 야만적인 국가들은 ‘역사의 상상적 대합실’에서 식민화의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이제 “유럽에서 기원한 근대성의 세계사적 보편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의문이 보다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우리 세계사 교과서가 압도적으로 유럽중심적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 외에도 아시아사나 자국사 서술에서도 드러나는 유럽중심주의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런 유럽중심주의의 뿌리는 일본의 경우, 거슬러 올라가 이미 메이지시대에서부터 찾아야 할 정도로 긴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일본에서 시작된 유럽중심주의에서는 유럽사는 일본이 국민국가 형성과 근대화를 위해 무언가 배워야 하는 지향점으로 설정되었던 사실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아시아와 그 역사는 일본이 근대화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역사학의 유럽중심주의는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자국사교육이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지향하였다면, 외국사 과정에서는 서구 편중주의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동시에 역사교육 과정에서 자국문화의 우수성, 나아가 중화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일본의 脫亞入歐는 문명/야만이라는 서구의 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하면서, 스스로를 문명 세계의 일원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중국의 동아시아 인식은 중국/서양이라는 이항대립적 구조로서 세계를 이해한 것이다. 중체서용론은 스스로를 또 하나의 대등한 보편으로 설정하면서, 서구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중국문화, 후기에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상정한 것이다.

일본과 중국에서 나타난 유럽중심주의는 식민지국가였던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세계사의 시대구분이나 기술에서 서구의 역사는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를 이해하는 틀도 서구의 기준에 기초하고 있는 데, 이는 역사발전단계론(theory of historical stage)을 광범하게 받아들인 데서 잘 드러난다. 이는 서구의 경험에서 도출한 일직선적인 발전론을 보편적인 세계사로 상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유럽중심주의 경향은 일본의 역사학에서 그대로 이전된 것이다. 그러나 거의 60년의 탈식민 단계를 거쳐 온 한국에서 여전히 유럽중심주의가 역사학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은 최근의 경제성장과 함께 생겨난 한국인의 대국주의 욕구와 그 배경으로서의 서구숭배를 반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팽창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경쟁체제를 계속한다면, 세계인 모두가 공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학이 “비서구사회의 역동성과 그 사회들이 유럽중심의 근대사에 포섭되어 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다시 연구해야 하고, 식민주의가 역으로 중심부 유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사적 맥락을 새로이 읽어내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선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문화적인 혼합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비교연구, 관계사 그리고 문화의 전이(transfer)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유럽중심주의를 넘어 ‘유럽의 지방화’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내 안의 민족주의를 넘어

우리의 역사인식 속에 암암리에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적 시각이 내면화하는 과정에는 민족주의가 그 동력을 부여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전지구화의 시대는 유례없는 인구 이동을 불러 오면서도 역으로 민족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데다가, 동아시아 3국의 경우 유독 민족주의적 열광이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가 인근국가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역사화해를 위한 기반을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비서구 국가에서는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동력으로 작용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이제 “유럽” 대신에 스스로를 지역적으로 구성된 중심부에 배치하면서면서 유럽중심주의와 동일한 서사의 지역판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는 제3세계 특유의 근대성의 역사를 놓치면서, 어느 누구도 체제로서의 후기자본주의가 제3세계의 작동엔진이 될 수 있음을 헤아리는 지구적 관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간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민족주의 역사학 대 탈민족주의 역사학의 논쟁이 치열하였고, 그 와중에 식민지근대화론도 이 논쟁을 격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역사학 대 탈민족주의 역사학은 그 자체가 양극화되고, 이분법적이어서 성찰적인 접근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역사발전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를 횡단하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nasnational history, 이하 횡단 역사학이라 칭함)의 관점과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횡단역사학 연구는 서구에서 그 논의가 출발하였다. 일국사 중심의 역사서술은 정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는 18세기 영국의 국민국가 건설의 부산물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사가 점점 더 경제의 세계화, 의사소통의 세

계화, 인구 증가 그리고 생태계의 파괴 속에서, 변화된 현실인식과 문제인식을 고민하는 한에 있어서 일국사 중심의 역사연구는 이론적으로 여러 불충분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횡단 역사학은 역사연구를 비유럽지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국가를 횡단하여 비교를 시도한다. 즉 유럽인의 경우 유럽적인 시각에 매몰되었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것이다. 일국사 서술에 대한 그간의 집착을 벗어나 보면, 지역적·국가적·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역사적 현상들의 크기와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고, 나아가서 보다 거시적이거나 지구적인 연관성을 역사학이 새로이 조명하고 의미화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의 경우에, 횡단의 역사학은 협력과 공존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한 계기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횡단역사학이 탈민족주의 역사학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국가의 자율성 상실과 인구이동과 인구구성의 다양화로 인해 국가를 넘어선 생활세계의 결합이 현저히 늘어났지만, 국민국가는 여전히 사법, 교육, 사회 복지 등을 통제하면서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횡단역사학 연구의 대표주자인 텔런(David Thelen)은 국가 횡단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 사상, 제도, 문화가 국민국가를 넘거나, 그 주변이나 주변으로, 혹은 그것을 통해서 작동하는가를 조사하고, 어떻게 국경선이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포괄하거나 규정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독일의 오스터함멜(Jürgen Osterhammel)은 국가횡단적 관계(transnational relations)를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세계정치의 상호의존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상호관계를 만들어가는 ‘행위주체’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 우리는 과거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관계도 새로이 성찰할 수 있다. 그간의 역사서술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 무엇을 수출하였는가’가 핵심적인 관심이었지, 식민지 지배자와 식민지인 사이의 복잡한 조정 과정이나 그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식민지는 서구문물의 도입 외에도 자신들 특유의 사회형태를 발전시켜간 측면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식민지가 역으로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횡단역사학에서는 구조 중심의 역사분석이나 선형적(lineal) 역사발전 모델에 따른 역사발전단계론을 넘어,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민국가를 구성하는 기초로 간주되는 영토성(territoriality)이 근대국가의 인위적인 산물임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지리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역사적 공간의 문제도 관심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안을 찾아

역사분쟁이 첨예화되던 지난 몇 년 사이에 당사국의 역사가 사이의 대화가 활발해졌다. 또한 여전히 민족주의적 열망이 강한 대중적 기반을 지닌 동아시아 3국,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현행질서를 넘어서는 상시적인 다자간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역사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자국의 교과서나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과 성찰의 목소리도 많아졌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화해를 둘러싼 미래의 전망은 밝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화해와 상생의 모색이 역사가들이나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역사적 화해를 위한 작은 노력들이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역사가들이 나쁜 기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비교연구, 관계사 그리고 문화의 전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국가 간의 상호관계를 통한 문화적인 혼혈(hybridity)을 읽어내어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서술된 역사 사실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더불어 공유된 역사기억의 확산을 위한 시민 사회의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맥락에서 전문적인 역사가 혹은 맨발의 역사가(barefoot historians)들이 주축이 되어 ‘민족주의의 동심원적인 확대가 아닌, 민족 문화 · 가치 · 전통이 다원적으로 공존하면서, 느슨하게 서로 결합된 열린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지역담론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갈등과 군사적 각축전이 첨예한 동아시아에서는, 유럽공동체처럼,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국민국가의 중간 매개체인 지역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담론이 하나의 ‘지적 실험’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사소통 체계에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화해를 위한 매개고리로서의 역사가의 역할과 NG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Imperialism, expansionism, nationalism & history reconciliation

Chung, Hyun-Baek (Professor, Social Science Department, SungKyunKwan University)

As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represented by computer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is accelerated under the dash of waves of globalization, we realize that the task of history science analyzing the past is confronted more by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future. In this sense of problem, historians are required to look back the past they had described with more introspective eyes. In addition, in this process, they have started to realize that history science is history description of the past, in particular, country-oriented history description is the by-product of modern history science but it has so many limitations for re-composing historical truth. Now, history science and furthermore, history education is in the situation to introspect by themselves calmly in stride.

If we introspect ourselves with this kind of searching attitude, we become to confirm how much we had looked the history from the viewpoint of nationalism in the past and while we consider ourselves as ‘a victim by the powerful countries’ but we happen to confirm that we had imperial eyes within ourselves and how much strong growth-centered mind was rooted in our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In addition, looking back the process of historical conflict among Korea/China/Japan in the past 20 years, we confirm that history science failed to weaken distorted politicization and more radical confrontation of conflict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we did not even put our steps forward for aiming reconciliation and peaceful community. In this sense, through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suggest simple and modest proposals for reading imperialism, expansionism, and

nationalism in ourselves and further for exploring historical reconciliation.

Imperialism in myself and expansionism in myself

First, imperialism in ourselves would be Eurocentrism inherent within the history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East Asia. Recently, among historians, voices of criticism of Eurocentrism are becoming louder. This is the suggestion of problems of history description and history educat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Europe and the North America as universal one and have taken non-Western world as peripheral one in the past. Europe is considered as the prime theoretical subject of almost all histories and we have taught that the history of the third world such as India, Peru, and Kenya as defect or failure of implementation and so, these barbaric countries had to wait until the period of colonization in 'imaginary waiting lounge of the history.' Now the question about "The meaning of world historical universality of the modernism originated from Europe" has been asked further and Eurocentrism appearing in the description of Asian history or their own nations is becoming an issue besides our world history textbooks have completely outnumbered Europe-oriented contents.

In case of Japan for this kind of root for Eurocentrism has a long tradition already in the period of Meiji that we have to trace back. In Eurocentrism started from Japan, it is related to the facts that Europe history had been set as an aiming point for Japan to learn something for formation of nationalistic nation and modernization. In comparison, Asia and its history was considered as the object of conquest for Japanese modernization.

Eurocentrism in history science was the same in case of China. If education of Chinese history had aimed for nationalism based on San-Min-Chu-I, (the Three Principles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foreign history, Europe-orientation was prominent. In particular, in the modern history, this phenomenon was more prominent. Concurrently, in the process of history education, superiority of Chinese own culture and furthermore, Zhong Hwa (China is the center of All) nationalism was continuously emphasized.

If Japan's Getting out of Asia and Entering into the Western Society had regulated Japan as one member of civilized world by themselves through internalizing the western logics of civilization/barbarism, recognition of China about the East Asia was the understanding of the world as a structure of bipolar confrontation of China/Western Society. While the "Theory of Main China and Use of the West" had set China as one more equal universality and they set China civilization and later Chinese socialism as counterproposal to supercede the western capitalism.

Eurocentrism emerged in Japan and China was appeared the same in a colonized country of Korea. In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the world history, the Western history had taken privileged position. Frame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is also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West and this is well

expressed in accepting broadly the theory of historical stage. This can be said to set a straight-line development theory derived from the Western experiences as universality of the world history. This inclination of Eurocentrism was transferred from Japan's history science as it was. However, the fact that Eurocentrism is still the mainstream in history science in Korea where almost 60 years' stage of getting out of colonialism can be said to reflect desire of Korean people for a great country and worship for the Western society in its background, which was generated together with the recent economic growth.

Now we all have to get out of this expansionism. Because we cannot avoid the crisis of common destruction of all global people if we continue the current competition system. History science shall study again "dynamism of non-western society and specific process of its societies to be subsumed into the modern history based on Eurocentrism" and it is also important to analyze impacts of colonialism on central Europe on the contrary. Paradigm of counterproposal for reading the context of the world history shall not be demanded just in proclamation but cultural compound shall be explained through specific researches. Comparative researches, related history, and researches on transfer of culture shall be carried out and in here, 'localization of Europe' shall be also discussed going beyond Eurocentrism.

Going beyond nationalism in myself

It is no exaggeration that nationalism gains force in the processes of internalization of imperialistic and expansionistic viewpoint in our recognition of the history. In globalization period, while unprecedented movement of population is occurring, on the contrary, nationalistic trend is being reinforced and in case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East Asia, enthusiasm of nationalism appears strongly typically. This is the fact that we all know and share that this weakens mutu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and encroaches ceaselessly the foundation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Of course, in non-western societies, it is already well known fact nationalism has played a role of resisting imperialism. However, nationalism of the East Asia is now reproducing regional diagram as the same description as Eurocentrism by deploying themselves in the center of region composed instead of "Europe." This is failing to see global viewpoint that post-capitalism as a system can become an operation engine of the third world while losing the modernism history typical to the third world.

Until now, in the field of Korean history science, debate between nationalism history science vs casting off/getting out of nationalism history science was fierce and during the process, it is true that modernization by colony also had contributed to agitate this debate. However, since nationalism history science vs casting off/getting out of nationalism history science is in itself bipolar and dichotomy, it is

difficult to have introspect approach and also difficult to find out the diversity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this sense, I would like to suggest viewpoint and methodology of history that transcend countries, that is transnational history. (Hereinafter called as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Researches on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has an origination in its discussion in the West. History description centered on one country is not normal and it is insisted that it is rather the by-product of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the United Kingdom in the 18th century. As far as modern history concerns on changed recognition of reality and recognition of problems among more globalization of economy, globalization of communication, increase of population, and destruction of ecology, researches on history based on one country is not sufficient theoretically.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expands researches of history into non-Europe region and furthermore, tries to compare by transcending countries. That is, in case of Europe, it means to go over the limit only tied to the European viewpoint. Once persistence in the past for the description of one country's history is overcome, we can confirm scale and impacts of historical phenomena transcendent of regional, national, and cultural boundaries and furthermore, we can find the necessity that history science needs to have new illumination and to find new meaning of macro and global connectivity. In particular, in case of the three countries of the East Asia,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open the history of cooperation and co-existence.

However,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is not carrying the banner of casting off/getting out of nationalism history science. It is because combination of the world living going beyond the boundaries of nation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loss of autonomy of people's republics, migration of popul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omposition of population but people's republics are still exercising lots of social impacts through controls of jurisdicti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s. A typical researcher of studies on the USA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David Thelen has defined the transnational history as 'study how people, ideology, system, and culture go beyond people's republic or to investigate how it operates in its foundation or vicinity or through itself, and to explain how national boundaries comprehend or regulate historical experiences of people.' Jürgen Osterhammel of Germany has said that transnational relations shall be understood indicating mutual dependence of the world politics going beyond offici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but furthermore, has suggested to pay attention to 'the subject of behavior' who makes that mutual relationship.

If we presume this mutual relation as prerequisite, we can newly introspect the relation between the past colony and imperialism. In the past history description, 'what did imperialistic nations export to their colonies?' was key attention but attention to complicated adjustment processes or mutual relation between colonial rulers and colonial residents was few.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typical

formation of their own society was not the object of attention except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by colonized countries. Like the same, what and how did colonized countries had provided impacts on Europe on the contrary was not paid attention.

Now in transnational history science, we have to increase attention to network by going over the phase theory of historical development according to history analysis focusing on structure or lineal historical development model. Also we shall increase attention to geography together with introspect regarding the fact that territoriality, which is considered as the foundation of composition of people's nation, is artificial by-product of modern nations and also shall include the issue of historical space in the scope of attention.

Searching for counterproposal

In the past several years during acute confrontation in historical conflicts, dialogues among historians of the parties have become very active. In addition, recognition is being increased that unless permanent multinational cooperation system going beyond current order of the North East is established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the East Asia, Korea/China/Japan with the foundation of the general publics who still have strong nationalistic desires,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e historical conflict. Simultaneously, voices of criticism and self-reflection regarding textbooks of their countries and history education has become a lot. In this point, I believe that prospect of the future surrounding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has become more brighter. However, exploration of reconciliation and mutual survival are still progressing only centering on historians or few civil organizations. But we have to explore ways to further proliferate these small efforts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into more general public.

First, I propose that historians shall make the history to be more objective to prevent a vicious cycle of bad memories. We have to read cultural hybridity through mutual relation among many countries by carrying out researches on comparison studies, relation history, and transfer of culture. In addition, efforts to share the objectively described historical facts are also important. Also positive activities of civil organizations for expanding shared historical memory are more required.

Finally, in this main stream, I propose to develop regional conversations aiming for 'loosely and mutually combined open network in the co-existence of racial culture, value, and tradition multi-dimensionally instead of concentric expansion of nationalism' while professional historians or barefoot historians shall become the main force. For example, in the East Asia where conflicts and military competition are acute, I propose that dialogues for realization of regional community, which is a middle medium for the world capitalism system and people's nations, shall be carried out as one 'intellectual experiment' like European Union. This will be able

to provide new contents in communication system taking place surrounding the issue of history. In this point, the role of historians and the role of NGO as a medium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have become more important.

帝国主义、扩张主义、民族主义及历史和解

郑贤柏（成均馆大学史学科教授）

随着全球化的潮流和以计算机和移动通信技术为代表的科技迅猛发展，我们意识到需要分析过去的史学课题，如今与对未来的更加本源性的思考所相连。这种问题意识，使史学家们以更加省察的视角去反省过去自己所叙述的历史。而在这个过程中，虽然史学是历史性叙述，尤其，以国家为中心的历史叙述是近代史学的产物，但是要想重组历史的真实性，还是存在很大局限性的。如今，史学以及历史教育迎来需冷静反省自己的时点。

反省自己的过去我们就可以意识到，迄今为止我们是以狭隘的民族主义视角来看待历史。尽管我们自认为是“强国压迫的受害者”，却潜藏着帝国主义的视野和非常强烈的“发展第一”观念。回顾过去20年来韩、中、日三国之间的历史矛盾我们就可得知，史学不仅没有缓和歪曲的政治化与矛盾的尖锐化，而且也没有推进面向和解与和平共处的进程。因此，想通过这次发表洞察自己潜藏着的帝国主义、扩张主义与民族主义，进而提出摸索历史性和解的小小应对之策。

潜藏着的帝国主义与扩张主义

我们所潜藏着的帝国主义首先可以说是东亚三国历史中隐藏着欧洲中心主义。最近，谴责欧洲中心主义的历史学家日益增多。迄今为止的历史叙述与历史教育把欧美历史发展当作普遍真理，而非西方世界历史一直倍受冷落，这种谴责可以说是对这种历史叙述与历史教育的挑战。欧洲历史被当作是所有历史中最独特的理论主题，而印度、秘鲁、肯尼亚等第三世界的历史则被看作是有缺陷和失败的历史，因此，“野蛮”的国家需要在“想象中的历史候车室”里一直等候到殖民化时代到来。如今，人们对“从欧洲起源的近代世界史普遍性所具有的意义”提出了疑惑，而我们的世界史教科书上占据压倒性地位的欧洲中心主义，以及在亚洲及本国历史叙述中也呈现出的欧洲中心主义也成为争论点。

这种欧洲中心主义根深蒂固，以日本为例，都可以追溯到明治时代。欧洲中心主义之所以能在日本生根发芽，是因为日本当初为了国民国家的建设与近代化进程需要效仿什么。而对日本而言，亚洲与其历史则是需要由日本来促进近代化和统治的对象。

史学上的欧洲中心主义在中国也不例外。中国的私立教育追求基于三民主义的民族主义，而世界史中则出现了严重偏向西方历史的现象，在现代史中尤为明显。与此同时，中国在历史教育过程中，也持续强调本国文化的优越性与中华民族主义。

如果说日本的脱亚入欧是内在化文明与野蛮的西欧逻辑，并同时把自己定位为文明世界的一员，那么中国的东亚认识则以中国和西方的二项对立结构来理解世界的。中体西用论把自己设定为又一个对等的普遍存在，从而作为可超越西欧资本主义的对策提出中国文明，后期则提出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

曾经在日本和中国出现的欧洲中心主义，也同样出现在曾为殖民地国家的韩国。在世界史的时代划分与记述中，西欧历史占据至高无上的地位。理解韩国史的框架也以西欧为基准，普遍接受历史发展阶段论(theory of historical stage)的现象很好地说明这一点。这可以说是从西欧经验得出的直线型发展论被当作普遍的世界史。这种欧洲中心主义倾向是原封不动地效仿日本历史学的缘故。但在历经60年非殖民时代的韩国，欧洲中心主义仍然成为史学主流，这可以说随着最近的经济增长，韩国人心中产生了大国主义欲求，而对西欧的崇拜则是这种欲求产生的根源。

如今，我们应该摆脱这种扩张主义。如果我们坚持目前的竞争体制，那么全世界人都无法摆脱攻灭危机。史学应该重新研究“非西欧社会的活力，与其社会成为欧洲中心主义近代史俘虏的具体过程”。反过来，研究和分析殖民主义对作为中心的欧洲所带来的影响也是非常重要的。这并非是要要求史学提出可重新审阅世界史脉络的替代方案，而是说应该通过具体研究说明文化的融合。不仅要开展比较研究、关系史以及文化转变，还要讨论超越欧洲中心主义的“欧洲地方化”。

超越潜藏的民族主义

审视我们的历史认知则不难发现，帝国主义和扩张主义视角被悄悄内在化的过程中，民族主义一直成为其动力所在。全球化时代引发前所未有的人口移动，可民族主义倾向反而日益强化。以东亚三国为例，其民族主义的狂热程度尤为明显。众所周知，这严重侵蚀相邻国家之间的相互合作与历史和解基础。

当然，在非西欧国家的民族主义一直是对抗帝国主义的原动力，这是无可厚非的事实。但东亚的民族主义却驱逐“欧洲”，把自身安置于区域的中心位置，从而打造与欧洲中心主义别无两样的区域版叙事。这等于忽略了第三世界的近代历史，以及后期资本主义体制可以成为第三世界引擎的众所周知的全球性观点。

期间，韩国的史学学界中一直存在民族主义史学对非民族主义史学之间的激烈纷争，而殖民地近代论进一步激化这种纷争也是事实。但民族主义史学和非民族主义史学本身就是两极化和二分状态，因此不仅难以以反省的角度进行接近，而且难以把握历史发展的多样性。

鉴于此，想提出超越国家的史学(transnational history，以下称横穿历史学)观点与方法论。横穿历史学发源于西欧，认为以一个国家为中心的历史叙述并不正常，是18世纪英国的国民国家建设的副产物。换言之，随着经济全球化、沟通全球化、人口增长及生态环境的破坏，考虑不同于以往的现实认知与问题认知方面，一国为中心的历史研究呈现出多个理论性缺陷。横穿历史学向非欧洲地区扩张历史研究，进而试着进行超越国家的比较，即这意味着欧洲人应超越欧洲式视角界限。当我们摆脱迄今为止的对一国史叙述的执迷不悟，就可以看到超越地区、国家和文化界限的历史现象之大小与影响力，进而发现史学需要用崭新的观点看待更加宏观和全球性问题的必要性。尤其对东亚三国而言，横穿历史学将为开创合作与共存的历史打造新的契机。

但横穿历史学并不标榜非民族主义历史学。因国民国家的自律性丧失与人口移动，以及人口构成的多样化，超越国家概念的生活体系结合已明显增加，但国民国家仍在管制司法、教育、社会福利等，行使诸多社会影响力。美国的横穿历史学研究代表人特伦(David Thelen)对横穿历史学做出如下定义，“横穿历史学是指调查人类、思想、制度、文化如何超越国家，或通过其底层和周边的启动，来说明国境以什么样的方式囊括和规定人们的历史经验的学科”。德国的奥斯特哈默尔(Jürgen Osterhammel)建议，要把横穿国家的关系(transnational relations)理解为超越政府之间正式关系的世界政治相互依存度，进而关注打造其相互关系的“行为主体”。

把这种相互关系作为前提，我们就可以重新反省过去殖民地与帝国主义之间的关系。在迄今为止的历史叙述中最核心的关注点是“帝国主义国家向殖民地出口了什么”，而对殖民地支配者与被

支配者之间复杂的调整过程，以及其相互关系的关注则甚少。殖民地除了引进西欧文物以外，还发展了自身特有的社会形态，而这却未成为受到关注的对象。同样，殖民地对欧洲所带来的影响也未受到关注。

如今，横穿历史学应该超越以结构为中心的历史分析，或直线型(lineal) 历史发展模式的历史发展阶段论，提高对网络的关注度。同样，作为国民国家构成基础的领土性(territoriality)，应与对近代国家人为产物的反省同步提高对地理学的关注，从而把历史空间问题也归入关注领域。

寻找应对之策

历史纷争变得更加尖锐的过去几年，当事国历史学家之间的对话却变得更加活跃。很多人认为目前仍然拥有广泛而强烈民族主义的东亚三国中、日、韩，除非建立超越东北亚的多方合作体系，否则难以解除历史矛盾。与此同时，对自国教科书或历史教育的谴责与反省之声也日益升高，可见围绕历史和解的前景还是光明的。目前，仍然有以和解与共生为目的的研究，以历史学家和几个市民团体为中心开展。我们应该再接再厉，摸索可以把历史和解扩散到大众的道路。

首先建议历史学家们更加客观地拟写历史，以便防止痛苦记忆的恶性循环。我们应该通过对比研究、关系史以及文化转变，洞察基于各国之间相互关系上的文学融合，而且要努力共享客观的历史事实。同时，要积极推进市民社会的相关活动，从而扩散大家得以共享的历史记忆。

最后建议，专业历史学家或民间历史学家(barefoot historians)发展有助于“多元化的民族文化、价值和传统共存，而非民族主义同心圆盲目扩大，宽松但互相结合的开放网络”的区域对话。例如，存在尖锐的矛盾与军事对弈的东亚，应开展类似欧洲共同体的世界资本主义体制与国民国家之间的媒介，即目的在于构筑地区共同体的对话机制。这会给围绕历史问题展开的沟通体系提供新的内容。因此，作为历史和解的媒介，历史学家与NGO的作用变得更加重要。

帝國主義、膨脹主義、民族主義そして歴史和解

鄭 鉉 栢 (成均館大 史學科 教授)

全地球化(globalization)の波が押し寄せ、コンピューターと移動通信で代表される科学技術の発展が加速化する中で、過去を分析してみなければならぬ歴史学の課題は、未来についてより根源的な質問と 触れ合っていることを悟るようになる。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歴史家たちはより省察的な目で自らが述べてきた過去を振り返ることが要求されるようになった。また、この過程において歴史学はその間の歴史敘述、特に國家中心の歴史敘述が近代歴史学の産物であるが、歴史的眞實を再構成するには多くの限界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り始めた。もう歴史学、ひいては歴史教育は冷静に自らを省察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処する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な省察的姿勢とともに自らを振り返ると、これまで我々はどれほど民族主義の視点から歴史を眺め、「強大国による被害者」を自任しながらも、我々の内部に自ら帝國主義の目(imperial eyes)を持っており、我々の(無)意識の中にはどれほど強い成長中心主義が根を下ろしているかを確かめるようになる。また、去る20餘年間進んできた韓/中/日間の歴史葛藤過程を振り返ると、我々は歴史学が大眾の中で歪曲した政治化と葛藤の尖鋭化を弱体化させることも

できなく、和解と平和共同體を目指す第一歩もうまく踏み出すことができなかつたことを確かめるようになる。このような意味で、この發表を通じて私の中の帝國主義、膨脹主義、民族主義を読み出し、さらには歴史和解を摸索する素朴な提案を取り上げようとする。

私の中の帝國主義(Imperialism in myself)、私の中の膨脹主義

私の中の帝國主義は先ず、東アジア3國の歴史の中に内在化したヨーロッパ中心主義(Eurocentrism)であろう。最近、歴史家たちの間でヨーロッパ中心主義を批判する声が高まっている。これはヨーロッパと北米の歴史發展を普遍的なことと見做し、非西歐世界を周辺化してきたその間の歴史敘述と歴史教育に対する問題提起である。ヨーロッパがほとんどあらゆる歴史の獨歩的な理論的主體として見做され、インド、ペルー、ケニアなどの第3世界の歴史は缺損や移行に失敗したと教えて来、このように、野蠻的な國家たちは「歴史の想像的待合室」で植民化の時期まで待た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もう「ヨーロッパから起源した近代性の世界史的な普遍性が持つ意味」についての疑問がさらに提起するに至り、我が世界史教科書が壓倒的にヨーロッパ中心的内容を持っていること以外にも、アジア史や自國史の敘述においても現われるヨーロッパ中心主義が問題視されている。

このようなヨーロッパ中心主義の根は日本の場合、さかのぼって既に明治時代から探さなければならぬほどに長い伝統を持っている。日本から始まったヨーロッパ中心主義においては、ヨーロッパ史は日本が國民國家の形成と近代化のために、何か学ばなければならぬ指向點として設定された事實と関連する。これに比べて、アジアとその歴史は日本が近代化し支配しなければならぬ對象として見做された。

歴史學のヨーロッパ中心主義は中國の場合にも同様に現われた。自國史の教育が三民主義に基礎した民族主義を指向したら、外國史の過程においては西歐偏重主義が著しく現われた。特に、現代史においてはこのような現象が著しかった。同時に、歴史教育の過程において、自國文化の優秀性、ひいては中華民族主義は持續的に強調された。

日本の脱亞入歐は文明/野蠻という西歐の論理を自ら内面化しながら、自らを文明世界の一員と定めたなら、中國の東アジア認識は中國/西洋という二項對立的な構造として世界を理解したのである。中體西用論は自らをまた一つの對等な普遍と設定しながら、西歐資本主義を超えることができる代案として、中國文明、後期には中國式社會主義を想定したのである。

日本と中國から現われたヨーロッパ中心主義は、植民地國家であつた韓國においてもそのまま現われた。世界史の時代區分や記述において、西歐の歴史は特權的な地位を占めている。韓國史を理解する枠も西歐の基準に基づいているが、これは歴史發展段階論(theory of historical stage)を廣範に受け入れたことからよく現われる。これは西歐の經驗から導出した一直線的な發展論を普遍的な世界史と想定することだと言える。このようなヨーロッパ中心主義の傾向は、日本の歴史學からそのまま移轉したのである。しかし、ほとんど60年の脱植民段階を経てきた韓國において、相変わらずヨーロッパ中心主義が歴史學における主流をなすことは、最近の經濟成長とともに生じた韓國人の大國主義の欲求とその背景としての西歐崇拜を反映することだと言える。

もう、我々はこのような膨脹主義から脱しなければならぬ。現在の競争體制を続いたら、世界人みんなが共滅の危機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ある。歴史學が「非西歐社會の力動性とその社會たちがヨーロッパ中心の近代史に包攝されていく具體的な過程」を再び研究しなければならぬ、植民主義が逆に中心部のヨーロッパに及んだ影響を分析することも重要で

ある。世界史的な脈絡を新たに読み出す代案的なパラダイムを宣言的に求めるのではなく、具體的な研究を通じて、文化的な混合を説明するべきである。比較研究、關係史そして文化の轉移(transfer)についての研究が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こでヨーロッパ中心主義を超えて「ヨーロッパの地方化」も論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の中の民族主義を超えて

我々の歴史認識の中に、暗暗裡に帝國主義的な膨脹主義的な視点が内面化する過程においては、民族主義がその動力を付与し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全地球化の時代は類例のない人口移動を惹き起こしながらも、逆に民族主義の傾向が強化されている上で、東アジア3國の場合、ただ一つ民族主義的な熱狂が強烈に現われる。これが隣近國家間な相互協力關係を弱体化させ、歴史和解のための基盤を絶え間なく蠶食していることは、私たちみんなが共有している事實である。

勿論、非西歐國家においては民族主義が帝國主義に抵抗する動力として働いてきたことは周知の事實である。しかし、東アジアの民族主義はもう「ヨーロッパ」の代わりに自らを地域的に構成した中心部に配置しながら、ヨーロッパ中心主義と同じ敘事の地域版を再生産している。これは第3世界特有の近代性の歴史を逃しながら、體制としての後期資本主義が第3世界の作動エンジンに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察する地球的な觀點をだれも看過することである。

その間、韓國の歴史學界においては、民族主義歴史學對脱民族主義歴史學の論争が熾烈し、その渦中に植民地近代化論もこの論争を激化させるのに寄與したのも事實である。しかし、民族主義歴史學對脱民族主義歴史學は、それ自體が兩極化され二分法的であるので、省察的な接近を難しくさせるだけでなく、歴史發展の多様性を把握しにくくさせる。

このような脈絡から、國家を横斷するトランスナショナル・ヒストリー(trnasnational history、以下横斷歴史學という)の觀點と方法論を提案しようとする。横斷歴史學の研究は西歐からその論議が出発した。一國史中心の歴史敘述は正常的ではなく、却ってこれは18世紀英國の國民國家建設の副産物だという主張である。現代史がますます經濟の世界化、意思疏通の世界化、人口増加そして生態系の破壊の中で、變化した現實認識と問題認識を苦しむ限りにおいて、一國史中心の歴史研究は理論的にいろいろな不十分性をさらけ出すということである。横斷歴史學は歴史研究を非ヨーロッパ地域へ擴大し、ひいては國家を横斷して比較を試圖する。即ち、ヨーロッパ人の場合、ヨーロッパ的な視点に埋没された限界を超えようということである。一國史の敘述に対したこれまでの執着から脱してみると、地域的・國家的・文化的境界を超える歴史的現象たちの大きさと影響力を確かめるようになり、ひいてはより巨視的や地球的な連関性を歴史學が新たに照明し意味化する必要性を見つけ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特に、東アジア3國の場合に、横斷の歴史學は協力と共存の歴史を開いていくための切っ掛けの用意に大きく寄与できるだろう。

ところが、横斷歴史學は脱民族主義歴史學を標榜するのではない。國民國家の自律性喪失と人口移動と人口構成の多様化によって、國家を超えた生活世界の結合が著しく増えたが、國民國家は相変わらず司法・教育・社會福祉などを統制しながら、多くの社會的影響力を行使しているからである。米國の横斷歴史學研究の代表走者であるテーレン(David Thelen)は、國家横斷の歴史を「どういうふう人間・思想・制度・文化が國民國家を超えるか、またその底辺や周辺へあるいはそれを通じて作動するのかを調査し、どういうふう國境線が人々の歴史的經驗を包括す

るとか規定するかを説明すること」と定義した。獨逸のオースタハメル(Jürgen Osterhammel)は、國家横斷的關係(transnational relations)を政府間の公式的な關係を超える世界政治の相互依存性を指稱することと理解するが、ここでもう一步進んで、その相互關係をつくっていく「行爲主體」に注目することを提案する。

このような相互關係を前提とする場合、我々は過去の植民地と帝國主義の關係も新たに省察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間の歴史敘述においては「帝國主義國家たちが植民地に何を輸出したか」が核心的な關心であり、植民地の支配者と植民地人間との複雑な調整過程やその相互關係についての關心は少なかった。植民地は西歐文物の導入以外にも、自分たちならではの社會形態を發展させていった側面は、關心の対象にならなかった。同様に、植民地が逆にヨーロッパ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んでかに注目しなかったのである。

もう、横斷歴史學においては構造中心の歴史分析や線形的(lineal)歴史發展モデルに従う歴史發展段階論を超えて、ネットワークについての關心を高めなければならない。同様に、國民國家を構成する基礎と見做す領土性(territoriality)が、近代國家の人爲的な産物であることについての省察とともに、地理學についての關心を高めながら、歴史的空間の問題も關心の領域に包含させるべきである。

代案を探して

歴史紛争が尖鋭化していた去る何年の間に當事國の歴史家との對話が盛んになった。また、相変わらず民族主義的な熱望が強い大衆的基盤を持っている東アジア3國、韓/中/日を中心として、東北亞の現行秩序を超える常時的な多者間協力システムが構築しなければ、歴史葛藤を解消しにくいという認識が高まっている。同時に、自國の教科書や歴史教育に対する批判と省察の声も多くなった。このような點から歴史的な和解をめぐった未來の展望が明るくなったと思う。しかし、相変わらず和解と相生の摸索が歴史家たちやいくつかの市民團體を中心として進行している。ところが、もっと進んでいって、歴史的和解のための小さい努力たちがより大衆的に擴散する方法を摸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先ず、歴史家たちが悪い記憶の悪循環を断ち切るために、歴史をより客觀的につくることを提案しようとする。比較研究、關係史そして文化の轉移についての研究を通じて、様々な國家間の相互關係を通じた文化的な混血(hybridity)を読み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客觀的に敘述された歴史事實を共有しようとする努力も重要である。合わせて、共有された歴史記憶の擴散のための市民社會の活動もより積極的に要求される。

最後に、このような脈絡から専門的な歴史家または素足の歴史家(barefoot historians)たちが主軸になって、「民族主義の同心圓的な擴大ではない、民族文化・價值・傳統が多元的に共存しながら、緩やかに互いに結合した開けたネットワーク」を目指す地域談論を發展させることを提案する。例えば、葛藤と軍事的な角逐戦が尖鋭な東アジアにおいては、ヨーロッパ共同體のように、世界資本主義體制と國民國家の中間媒介體である地域共同體の實現のための談論が一つの「知的實驗」として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歴史問題をめぐって生じる意思疏通體系に新しいコンテンツが提供できるはずである。このような點から、歴史和解のための媒介キーとしての歴史家の役割とNGOの役割がもっと重要になった。